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심리적 친밀도*

Psychological Closeness Between Grandmothers and Grandchildren

서 동 인**

Suh, Dong In

유 영 주***

Yoo, Young Ju

ABSTRAC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psychological closeness between grandmothers and their grandchildren and functional aspects of grandmothers in the Korean family. 219 grandchildren, fifth and sixth grade children of 5 elementary schools in Seoul completed questionnaires.

The results showed that grandmothers in Korea are categorized in an institutional role characterized by status and role performance. Among social role theory, resource theory and system views, the social role theory best explained psychological closeness between grandmothers and grandchildren.

I. 문제의 제기와 연구목적

최근의 인구학적 변화로 가족관계에서 조부모와 손자녀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과거 보다는 조부모의 역할로 지내는 기간이 매우 확장되어 20-30년의 기간으로 추론되고 또한 출산율이 감소하여 부모역할과 조부모역할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단계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년기와 노년기의 삶에 차지하는 조부모역할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손자녀입장에서도 생존하는 조부모를 갖는 비율이 증가하고 이들은 더욱

오랜 기간동안 조부모와 관계를 갖게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친밀한 조부모와 손자녀관계에서 양세대는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음이 실증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조부모와 손자녀의 밀도있는 관계는 손자녀의 전 생애 단계에서 중요한 심리적 발달을 촉진시키고(Kivnick, 1982) 손자녀에게 노년기에 닥치는 사회심리적(Kornhaber, 1985). 또한 조부모와 손자녀간의 밀접한 유대관계는 가족원들의 응집성을 강화시키고 가족역사의 계승을 용이하게 하며, 가족에

* 본 논문은 1991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의 일부임.

** 성심여자대학 가정관리학과 강사

*** 경희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의 소속감을 굳게 해주어 가족원들의 정체감에 기여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동시에 조부모 편에서도 친밀한 손자녀와의 관계에서 일생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생의 의미를 찾게 되고 생산감이라는 성취감을 갖게 되며(Judson, 1985)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Kivnick, 1980).

이렇듯 변화되어 가고 있고 또한 중요한 관계인 조부모 손자녀관계가 구조상으로 핵가족화되어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조부모와 손자녀가 서로 친밀한 관계를 이룬다는 것은 양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조부모와 손자녀가 서로 친밀하게 관계를 가지는데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관심을 풀어어나가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조부모와 손자녀관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현시점에서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조모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조모와 손자녀관계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사회적 역할 관점과 자원이론적 접근을 취하고자 한다. 사회적 역할 관점은 이 관계에 대한 일차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며 이 관계의 정서적 관계와도 관련을 갖는다. 또한 이 사회적 역할 관점은 우리의 현대가족에서 손자녀에게 수행하는 조모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는 조모의 기능이 수행되는 수단이 바로 조모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모와 손자녀 관계에 대한 자원이론적 접근은 노년기를 자원의 상실기로 여기고 경제적인 부와 같은 물질적 요인이 가족관계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현 세대에서 유용한 관점이 될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조부모와 손자녀 세대의 중간세대인 모를 포함시켜 삼세대를 하나의 체계로 보고자한다. 동시에 부계와 모변, 처

변의 친족관계망의 상호작용의 유형과 기능에 있어서의 차이를 조모와 손자녀관계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손자녀의 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모의 자원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둘째, 조모와 손자녀의 상호작용의 내용인 조모역할 수행을 밝히고 조모역할 수행이 조모와 손자녀의 심리적 친밀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조모에 대한 모의 태도가 우호적이고 모가 손자녀에게 조모와 상호작용을 많이 가지도록 도모할수록 손자녀는 조모와 심리적 친밀도를 가지는 것을 검증하고자 한다.

넷째, 손자녀의 조모와의 심리적 친밀도와 조모가 손자녀에게 수행하는 기능이 친조모, 외조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섯째, 이상의 연구문제를 규명함으로써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심리적 친밀도를 설명하는 보다 나은 모델을 탐색하는 작업을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II. 관련연구의 고찰

1. 조모의 개인적 자원과 조모에 대한 손자녀의 심리적 친밀도

장이론(field theory)에서 출발한 자원이론은 대인관계의 힘의 관계나 정서적 관계를 설명하는 관점으로 사용되어 왔다. 자원이란 타인의 욕구 충족이나 목표를 획득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의 자산(Wolf, 1959: 100; Cromwell & Olson, 1975에서 재인용)이라고 정의된다. 가족의 권력분석에서 자원이론적 설명은 상대의 욕

구를 충족시키는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모든 자원이 전부 권력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 상대자가 그 자원을 유효한 보상으로 인지하는 경우에서만 힘으로 환원된다. 결혼만족도와 결혼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도 자원과 개인의 욕구와 만족감을 연결시키고 있다(Blood & Wolf, 1960; Rettig & Bubolz, 1983). 여기에서도 배우자로부터의 자원의 제공이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면 그 관계에 대한 만족감으로 환원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 손자녀의 조모에 대한 심리적 유대에 영향을 미치는 조모의 개인적 자원을 밝히고자 한다.

노년기의 중요자원으로 조모의 건강과 경제상태, 배우자의 유무를 선정하였고 동시에 대인관계에서 중요 자원인 조모의 성격요인으로 상냥함과 유머감각(최외선, 1987; Minuchin, 1974; Satir, 1972)을 포함시켜 손자녀의 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와와의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2. 조모역할 수행과 조모에 대한 손자녀의 심리적 친밀도

성인과 중년의 역할변화를 분석하는데 Rosow (1976)의 역할과 지위의 구분과 이 두요인의 조합에 따른 4개의 유형은 매우 유용하다. George (1980)는 미국의 조부모역할은 비정형적 유형으로서 귀속적인 지위를 가지나 이 지위에는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역할행동이 동반되고 있지 않아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특이한 성격을 띤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조부모역할에는 문화적으로 일치되는 규범이 제시되고 있는가? 우리의 조부모역할의 평균적인 유형은 무엇인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조모역할은 어떤 내용이며 어떤 수준인가? 이에 대한 접근은 우리

의 조모역할이 어느 정도 제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고 또한 현대가족에서 수행되어지는 조모의 기능적 측면을 알 수 있는 작업이 된다.

이와 같은 역할이론적 접근은 조모와 손자녀관계의 구조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정서적 관계의 내용도 제공한다. 이는 가족구조로 반영되는 역할구조, 권력구조와 의사소통구조는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Gecas, 1979). 교환이론으로 접근한 부부의 역할구조와 정서적 관계에 대한 Nye와 McLaughlin의 연구(1976)는 조모역할이 손자녀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면 이것이 보상으로 지각되어 조모에 대한 손자녀의 심리적 친밀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정을 세우는데 근거가 된다. 그렇다면 손자녀가 보상으로 인식하는 조모역할은 무엇인가?

3. 조모에 대한 모의 태도와 손자녀의 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

부모는 손자녀와 조부모를 연결하는 중간세대로서 세대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힘을 갖는다. 또한 부모의 조부모에 대한 감정은 자녀에게 전이되고 이러한 감정과 태도는 자녀의 일생동안 지속된다. 특히 모는 자녀의 일차적인 사회화를 담당하고 친족관계유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모의 조모에 대한 태도는 조모와 손자녀관계의 질과 성격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클 것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모와 손자녀 관계를 분석하는데 모를 포함시킨 체계적 접근을 취한다.

4. 친조모, 외조모여부에 따른 조모에 대한 손자녀의 심리적 친밀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김경원, 1989; 유

영주, 1988; 이경희, 1988; 이광자, 1989; 이효재, 1971; 최재석, 1975)은 현재 우리의 친척관계는 접촉빈도면에서 부계와 처계의 양면적으로 증가를 보이고 있고, 시가관계는 권리와 의무로 특징지어지는 사회적 관계인 반면 처계는 친밀하고 비형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결과가 친조모, 외조모와 손자녀와의 관계에서 반영되고 있을까? 손자녀에게 수행되어지는 친조모의 기능은 외조모의 기능과 다른 성격을 띠고 있을까?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사회계층면에서 표본이 편포되지 않은 강남과 강북 지역에 있는 국민학교의 5-6학년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990년 6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친조모와 외조모가 동시에 생존하고 있는 250명의 학생에게 친조모와 외조모에 관한 질문지를 10일간의 간격을 두고 배부하여 조사하였고 219명의 응답인 총 438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의 작성

2-1. 손자녀의 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

손자녀가 지각하는 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의 측정은 Lowman(1980)의 Inventory of Family Feeling을 근거로 하였다. 이 척도의 상대방에 대한 응답자의 감정을 나타내는 문항과 대인간의 심리적 친밀도를 나타내는 한국식표현을 포함한 총 26문항을 선택하여 국민학교 5학년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18문항의 신뢰도 Cronbach의 $\alpha = .92$ 의 척도가 완성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은 “그렇다”, “모르겠

다”, “아니다”의 3개 범주로 구성되었으나 “모르겠다”라는 중립적인 응답을 “아니다”의 부정적인 응답과 같은 범주로 간주하였다. 0점에서 18점까지의 분포를 이루며, 점수가 많을수록 손자녀의 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2. 조모역할 수행척도

조모역할 수행척도는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된 모든 내용을 반영하는 31개 문항을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통하여 요인과 문항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쳤다(서동인, 1989). 훈계자역할의 6개문항, 대리모역할의 4개문항, 생활간섭자역할의 5개문항, 가계역사전수자역할의 3개문항, 손자녀지지역할의 4개문항과 물질적제공자역할의 2개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하시지 않는다”-“자주 하신다”의 양극을 갖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모의 역할수행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훈계자역할은 6점에서 30점, 대리모역할은 4점에서 20점, 생활간섭자역할은 5점에서 25점, 가계역사전수자역할은 3점에서 15점, 손자녀지지역할은 4점에서 20점, 그리고 물질적 제공자역할은 2점에서 10점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본 척도의 신뢰도검증은 전체문항이 Cronbach의 $\alpha = .89$ 이었고 각 요인별로는 훈계자역할 $\alpha = .83$, 대리모역할 $\alpha = .81$, 생활간섭자역할 $\alpha = .65$, 가계역사전수자역할 $\alpha = .72$, 손자녀지지역할 $\alpha = .81$ 그리고 물질적 제공자역할은 $\alpha = .63$ 으로 나타났다.

2-3. 조모에 대한 모의 태도

조모에 대한 모의 태도는 모가 자녀에게 조모와의 상호작용을 어느 정도 권장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4개 문항과 조모와 모의 관계를 측정하는

하나의 문항으로 되었다. 총 5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의 $\alpha = .65$ 이다. 편의상 4개 문항 점수는 조모에 대한 태도로, 그리고 조모와 모의 관계를 묻는 문항의 점수는 조모와 모의 관계로 명명하였다.

2-4. 조모의 자원

조모의 자원으로 선정된 조모의 건강, 조모의 경제상태, 조모의 상냥함, 조모의 유머감각은 이에 대한 손자녀의 지각을 측정하였는데 각각 한 문항씩으로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2-5. 기타변수의 측정

응답자의 성별, 지역의 근접성, 모의 취업여부, 조모의 연령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는데 지역의 근접성은 조모가 (1)동거 (2)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사신다. (3)걸어서가는 거리는 아니나 서울에 사신다. (4)경기도에 사신다 (5)다른 지방에 사신다 (6)외국에 사신다로 구분하였다.

3. 통계분석 방법

통계처리는 주요변수에 있어 친조모, 외조모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종속적 t-검증과

χ^2 검증을, 주요변수간의 관계는 Enter방식의 중다회귀분석과 변량분석, 경로분석을 사용하였다. 빈도분포, 백분율, 산술평균, 표준편차가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49.3%, 여자 50.2%이고 연령은 10세 20.1%, 11세 33.8%, 12세 46.1%이다. 친조모의 연령은 60세이하 12.3%, 61-70세 47%, 70세이상인 34.3%이고 외조모의 연령은 60세이하 21.5%, 61세-70세 48%, 70세 이상 29.3%로서 외조모의 연령이 친조모의 연령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모의 학력수준이 낮는데 이는 이 연령층에 속하는 시대적인 영향때문이다. 친조모나 외조모와 동거하는 빈도수가 전체의 14.6%인데 이는 1985년 인구및 주택센서스에 나타난 3세대가족 21.45%보다는 낮다. 이는 연구대상을 친조모와 외조모가 같이 생존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모집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 수	집 단	빈도	%	변 수	집 단	빈도	%
성별	남자	109	49.8	모의취업	취 업	86	39.3
	여자	110	50.2		비취업	133	60.7
모의연령	30-35세	21	9.6	부의학력	국 졸	11	5.0
	36-40세	129	58.9		중 졸	24	11.0
	41-45세	61	27.9		고 졸	90	41.1
	46-50세	5	2.3		대 졸	94	42.9
범주	친 조 모		외 조 모				
조모의연령	50-60세	27	12.3	47	21.5		

	61-70세	103	47.0	105	48.0
	71-80세	61	27.9	60	27.4
	81-90세	14	6.4	4	1.9
조모의 학력	무학	49	22.4	36	16.4
	국졸	72	32.9	86	39.3
	중·고졸	39	17.8	43	19.7
	대졸	4	1.8	6	2.7
조모의 거주지	동거	27	12.3	5	2.3
	걷는거리	16	7.3	26	11.9
	서울	39	17.8	44	20.1
	타도	132	60.3	139	63.5
	외국	5	2.3	4	1.8
조모의 건강	아주 나쁘다	9	4.1	9	4.1
	나쁜편이다	26	11.9	32	14.6
	보통이다	47	21.5	47	21.5
	좋은편이다	84	38.4	87	39.7
	아주 좋다	53	24.2	44	20.1
조모의 경제상태	나쁘다	4	1.8	5	2.3
	나쁜편이다	14	6.4	11	5.0
	보통이다	95	43.4	99	45.2
	좋은편이다	85	38.8	79	36.1
	아주 좋다	21	9.6	25	11.4
조모의 상냥함	무뚝뚝하다	7	3.2	4	1.8
	무뚝뚝한편임	10	4.6	2	0.9
	보통이다	51	23.3	25	11.4
	상냥한 편임	81	37.0	84	38.4
	아주 상냥함	70	32.0	104	47.5
조모의 유머	재미없음	8	3.7	1	0.5
	재미없는편임	21	9.6	12	5.5
	보통이다	90	41.1	79	36.1
	재미있는편임	58	26.5	74	33.8
	아주재미있음	42	19.2	52	23.7
조부의 생존여부	생존	111	50.7	121	55.3
	사망	106	48.4	96	43.8

조모와	사이가나쁘다	3	1.4		
모의관계	나쁜편이다	4	1.8	3	1.4
	그저그렇다	44	20.1	15	6.8
	좋은편이다	82	37.4	76	34.7
	아주좋다	86	39.3	124	56.6

2. 주요변수의 일반적 경향

2-1. 손자녀의 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

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의 일반적 경향은 0점에서 18점까지의 분포로 평균 12.38점, 표준편차 5.80을 보였다. 손자녀의 외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가 친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4.03, p = .000$).

2-2. 조모의 개인적 자원

조모의 경제상태와 건강, 배우자 유무 그리고 조모의 상냥함과 유머에 대한 정보는 <표 1>에 제시되었다. 조모의 경제상태, 건강과 배우자의 유무는 친조모, 외조모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외조모가 친조모보다 더욱 상냥한 경향을 보이고($\chi^2 = 18.194, p = .0001$) 외조모가 친조모보다 더욱 재미있게 말하는 것으로($\chi^2 = 8.939, p = .0114$) 나타났다.

2-3. 조모의 역할수행

손자녀가 지각한 6개 영역의 조모역할 수행은 다음과 같다.

<표 2> 조모역할 수행의 일반적 경향

	친조모		외조모		t값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훈계자	23.71	5.72	25.21	3.66	-3.25	$p = .001$
대리모	13.26	4.53	13.99	3.93	-1.78	$p = .075$
생활간섭자	12.54	3.79	12.02	3.25	1.53	$p = .126$
가계역사전수자	9.21	3.25	9.25	3.00	-.14	$p = .892$
손자녀지지자	11.97	3.61	12.83	3.28	-2.63	$p = .009$
물질적제공자	6.80	2.10	7.20	1.81	-2.12	$p = .034$

<표 2>에서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역할수행은 영역별로 살펴보면 훈계자역할 $p < .001$ 손자녀 지지역할($p < .01$), 물질적제공역할($p < .05$)에서 외조모가 친조모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수행

하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유의도 수준인 $p < .05$ 에서는 벗어났지만 대리모역할에서도 외조모가 친조모보다 높게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인에게 친조모

와 외조모에 대한 응답을 받지 않은 예비연구(서동인, 1989) 결과와 다른데 특히 친족관계 연구에서 친가, 외가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서는 동일인의 양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에서 놀라운 발견은 가계역사전수자역할에서 친조모, 외조모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가족에서 부계의 연속성에 큰 가치를 두는 것으로 생각할 때 기대와는 다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조부모역할도 부모역할에서와 같이 성별에 따른 분화를 보인다는 사실(Troll, 1979)과 관련할 때 가계역사전수자역할이 조모보다는 조부의 역할이 아닌지, 그리고 친조부, 외조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다음에는 조모역할의 영역별 비교를 각 영역의 평균값을 근거로 살펴보았다. 친조모의 경우 훈계자역할(평균=3.948), 물질적제공자역할(평균=3.397), 대리모역할(평균=3.308), 가계역사전수자역할(평균=3.047), 손자녀지지자역할(평균=2.992), 생활간섭자역할(평균=2.502) 순위로 수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의 평균값을 볼 때 친조모의 훈계자역할, 물질적제공자역할, 대리모역할과 가계역사전수자역할은 수행되어지는 편인 반면, 손자녀지지자역할과 생활간섭자역할은 잘 수행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조모의 경우는 훈계자역할(평균=4.180), 물질적제공자역할(평균=3.600), 대리모역할(평균=3.479), 손자녀지지자역할(평균=3.205), 가계역사전수자역할(평균=3.082), 생활간섭자역할(평균=2.405) 순위로 수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조모의 훈계자역할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수행되고 물질적제공자역할, 대리모역할, 손

자녀지지자역할과 가계역사전수자역할은 수행되어지는 편이고, 생활간섭자역할은 극히 낮은 수준으로 수행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조모들이 손자녀의 생활을 거의 간섭하지 않고 친구처럼 같이 놀아주고 함께 외출하거나 또 심리적인 지지자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인생철학이나 형제간의 우애와 예절들에 대한 교육적인 조모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여러역할중 훈계자역할이 제일 높은 순위로 수행되어진다는 사실은 손자녀가 조모와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서 알 수 있다. 또한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여러역할중 훈계자역할이 제일 높은 순위로 수행되어진다는 사실은 손자녀가 조모와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서 건전한 인생 철학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친조모와 외조모역할 수행의 정도를 나타내는 순위를 보면 가계역사전수자역할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 결과는 가계의 전수의 의미나 중요성은 외조모보다는 친조모의 조모역할 수행에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위에서 언급한 조모의 가계역사전수자역할이 친조모, 외조모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아 부계의 가족 규범이 강한 우리의 가족에서 이 조모역할 영역이 외조모보다는 친조모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을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예측과는 다른 결과라는 앞서의 해석과 상반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친조모의 조모역할 수행의 수준이 외조모보다는 낮고 그러한 상황에서 조모역할 영역 평균값의 순위가 외조모보다는 친조모에서 우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 역할영역이 갖는 비중은 외조모보다는 친조모에서 더욱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 단지 손자녀가 지각하는 면에서는 가

계역사전수자역할이 친조모 외조모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록 이 가계역사전수자역할이 외조모보다는 친조모에게 더욱 큰 비중을 갖는다 하더라도 손자녀의 편에서 유의한 차이를 지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영역에서의 친조모의 영향력이 외조모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손자녀들이 친조모보다는 외조모와 대면적 만남이나 전화를 통한 접촉이 더욱 빈번하고, 친조모보다는 외조모와 친밀한 유대를 갖고 동시에 외조모가 친조모보다 손자녀에게 조모역할을 더욱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지각되는 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한 친족관계의 연구들(김경원, 1989; 유영주, 1989; 이광자, 1989; 이경희, 1988; 이효재, 1971; 최재석, 1975)과 같은 맥락을 이룬다. 우리의 현대가족에서 직계가족의 원리가 강하게 잔존하고 있는 동시에 친족체계의 만남은 빈도면에서 시가와 친가의 양변으로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시가관계는 권리와 의무로 특징지어지고 친정관계는 친밀하고 비형식적인 사회적 관계라고 규명한 선행연구(최재석, 1975; 이광자, 1989; 이경희, 1988)결과가 손자녀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다시 입증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4. 조모에 대한 모의 태도와 조모와 모의 관계

손자녀가 조모와 상호작용을 갖도록 모가 도모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과 조모와 모와의 관계가 어떻게 손자녀에게 지각되는가를 구분하여 분석해보면, 모가 손자녀에게 조모와 상호작용을 갖도록 권장하는 정도는 친조모(13.4) 외조모(12.9) 모두 긍정적으로 두 관계선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고($t=1.38, p=.170$), 외조모와 모의 관계가 친조모와 모의 관계보다 유의하게 긍정적인 것으로($t=-4.32, p=.000$) 지각되었다.

3. 연구문제의 분석

3-1. 조모의 개인적 자원과 손자녀의 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

조모의 개인적 자원으로 선정된 조모의 건강, 경제상태, 조모의 배우자유무, 조모의 상냥함, 조모의 유머를 독립변수로 하고 또한 선행연구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밝혀진 손자녀의 성별, 지역의 근접성, 모의 취업과 조모의 연령을 통제변수로 포함시켜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손자녀의 친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는 조부의 유무($\beta=-.132, p<.05$), 조모의 상냥함($\beta=.425, p<.001$)과 조모의 유머($\beta=.228, p<.0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외조모에 대한 손자녀의 심리적 친밀도는 조모의 상냥함($\beta=.378, p<.001$)과 조모의 유머($\beta=.198, p<.01$)에 의하여 유의한 영향을 받는다. 조모와 손자녀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자원은 정적 속성을 갖는 자원보다는 성격요인인 상냥함과 유머감각이라는 동적 속성의 자원임을 알 수 있다. 친조모와 손자녀관계에서는 조부의 생존여부가 추가되어 외조모와 손자녀관계에서와는 달리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3-2. 조모역할수행과 손자녀의 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

조모역할의 6개 영역과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손자녀의 친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는 조모역할 영역중 조모의 훈계자역할($\beta=.450, p<.001$), 손자녀지지자역할($\beta=.239, p<.01$), 생활간섭자역할($\beta=-.232, p<.001$)과 물질적제공자역할($\beta=.142, p<.05$)에 의하여 유의한 영향을

받는다. 손자녀에게 조모가 훈계자역할, 손자녀 지지자역할, 물질적제공자역할을 많이 하는 것으로 지각될수록, 그리고 손자녀의 생활을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지각될수록 손자녀가 친조모에 대하여 갖는 심리적 친밀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조모에 대한 손자녀의 심리적 친밀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손자녀지지자역할($\beta = .370, p < .001$), 생활간섭자역할($\beta = -.260, p < .001$), 훈계자역할($\beta = .191, p < .01$), 대리모역할($\beta = .154, p < .05$), 물질적제공자역할($\beta = .132, p < .05$)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변수중 지역근접성 가변수($\beta = -.136, p < .01$)가 손자녀의 외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외조모가 손자녀지지자역할, 훈계자역할, 대리모역할, 물질적제공자역할을 많이 하는 것으로 손자녀가 지각할수록, 손자녀의 생활을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할수록, 그리고 외조모가 타지역보다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손자녀의 외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상에서 손자녀의 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중 훈계자역할, 손자녀지지자역할, 생활간섭자역할과 물질적제공자역할은 친조모와 외조모와의 두 관계에서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대리모역할은 친조모와 손자녀관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외조모에 대한 손자녀의 심리적 친밀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

대인관계에서 역할이론적 접근이 그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역할 구조와 정서적 관계가 얽혀있는 것으로 예측된 바와 같이, 조모역할의 6개 영역과 통제변수를 포함한 중다회귀방정식은 손자녀의 친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를 59.2%를 그리고 외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를 45.7%를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 개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등장하는가는 그에 대한 상대방의 정서적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설명요인이 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본다.

3-3. 조모에 대한 모의 태도와 손자녀의 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

조모에 대한 모의 태도와 조모와 모의 관계, 그리고 4개의 통제변수를 포함한 중다회귀분석결과 는 다음과 같다.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 모의 관계는 친조모($\beta = .543, p < .001$)와 외조모($\beta = .506, p < .001$)에 대한 손자녀의 심리적 친밀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모가 손자녀에게 조모와 상호작용을 갖도록 도모하는 정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손자녀가 조모와 모의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는 모가 손자녀에게 조모와 상호작용을 어느 정도 도모하는 것으로 지각되느냐보다 더욱 조모와 손자녀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유의한 변수임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본다. 통제변수중 조모의 연령($\beta = .128, p < .05$)과 지역의 근접성($\beta = -.129, p < .05$)에 의하여 유의한 영향을 받는다. 외조모의 연령이 젊을수록, 그리고 외조모가 타지역보다는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손자녀의 외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는 유의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상에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인 조모의 개인적 자원, 조모의 역할수행 그리고 조모에 대한 모의 태도와 손자녀의 심리적 친밀도와 의 관계를 친조모와 외조모관계로 분리하여 분석

하여 보았다. 이제까지의 분석에서 손자녀의 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함께 포함하여 회귀분석한 결과가 <표 3>와 <표 4>에 제시되었다.

<표 3>에서 친조모에 대한 손자녀의 친밀도는 8개 변수중 조모의 유머, 조부의 유무와 물질적제공자역할의 영향력은 유아의 수준에서 벗어나고 나머지 변수중 훈계자역할($\beta = .361$), 손자녀지

지자역할($\beta = .184$), 조모와 모의 관계($\beta = .181$), 조모의 상냥함($\beta = .159$), 그리고 생활간섭자역할($\beta = -.126$)순으로 종속변수를 설명하고 있다. 이 5개 변수들은 손자녀의 친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의 변량을 65%정도 설명하고 있다

<표 4>에서 손자녀의 외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를 보면 앞서의 유의한 영향변수로 나타났던

<표 3> 친조모에 대한 손자녀의 심리적 친밀도의 유의한 영향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 변수	친조모에 대한 b	손자녀의 β	심리적 친밀도 p-value
훈계자역할	.367***	.361	.0000
손자녀지자역할	.297***	.184	.0033
조모와 모의관계	1.193***	.181	.0003
조모의 상냥함	.916**	.159	.0057
생활간섭자역할	1.193**	-.126	.0055
물질적 제공자역할	.289	.103	.0549
조모의 유머	.342	.060	.2483
조부의 유무	-.109	-.010	.8207
상수	-9.919		
R ²	.650***		
N	215		

조부의 유무 : 생존 1, 사망 2

Durbin-Watson Test=1.9629

** p<.01 *** p<.001

조모의 훈계자역할, 물질적제공자역할, 조모의 유머와 조모의 연령은 유의 수준에서 벗어났다. 나머지 변수중 조모와 모의 관계($\beta = .260$)가 외조모에 대한 손자녀의 심리적 친밀도의 변량을 가장 크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자녀지자역할($\beta = .228$), 생활간섭자역할($\beta = -.198$), 조모

의 상냥함($\beta = .159$), 대리모역할($\beta = .144$), 지역의 근접성($\beta = -.139$)의 순이다.

친조모와 외조모에 대한 손자녀의 심리적 친밀도에 공통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조모의 손자녀지자역할, 생활간섭자역할, 조모의

(표 4) 외조모에 대한 손자녀의 심리적 친밀도의 유의한 영향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 변수	외조모에 대한	손자녀의	심리적 친밀도
	b	β	p-value
조모와 모의 관계	1.672***	.260	.0000
손자녀지지지역할	.298**	.228	.0023
생활간섭지역할	-.261***	-.198	.0003
조모의 상냥함	.818**	.159	.0055
대리모역할	.159*	.144	.0003
지역의 근접성	-1.259**	-.139	.0063
물질적제공지역할	.239	.101	.0721
훈계지역할	.103	.087	.1578
조모의 연령	-.044	-.071	.1574
조모의 유머	.043	.009	.8709
상수	-.0106		
R ²	.529***		
N	209		

지역의 근접성 : 서울 1, 타지역 2

Durbin-Watson Test=1.762

** p<.01 *** p<.001

상냥함 그리고 조모와 모의 관계이다.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의 손자녀지지지역할의 수행정도가 높을수록, 조모의 손자녀 생활간섭지역할 수행이 낮을수록, 조모의 성격이 상냥하게 지각될수록, 그리고 조모와 모의 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지각될수록 손자녀의 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친조모와의 관계에서는 조모의 훈계지역할이 유의한 영향을 미쳐 조모가 훈계지역할을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손자녀가 지각할수록 친조모에 대한 손자녀의 심리적 친밀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외조모와의 관계에서는 대리모역할과 지역의 근접성이 유의한 영향변수이다. 외조모가 타지역

보다는 서울에 거주할때, 그리고 대리모역할을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손자녀가 지각할수록 손자녀의 외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조모의 훈계지역할이나 대리모역할의 수행정도는 친조모보다 외조모가 높는데 이 영역이 손자녀의 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에는 달리 영향을 미친다. 이 결과에서 손자녀에게 생의 철학이나 형제간의 우애나 예절등을 가르치는 역할은 외조모보다는 친조모에게 기대되는 조모의 역할이고 반면 집에 와서 모대신 집안일을 도와 주는 대리모역할은 친조모보다는 외조모에게 기대되는 조모의 역할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외조모에 대한 손자녀의 친밀도에 지역의 근

접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조모의 거주지가 가까울수록 자주 만나게 되고 이러한 빈번한 접촉은 외조모에 대한 손자녀의 심리적 친밀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의 근접성이 친조모와의 관계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외조모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경향을 보인 것은 외조모와 손자녀관계가 비교적 비형식적인 정의적 속성을 갖기 때문에 두 세대간의 접촉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 심리적 유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3-4. 경로분석모델의 설정

이제까지 중다회귀분석을 통한 각각의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주고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에 있어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모델에 의하면 독립변수들간의 서로의 관계가 규명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면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독립변수들이 서로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면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타진해 보기 위하여 경로모델의 설정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예민한 계수를 밝혀줄 수 있으므로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심리적 친밀도를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선택한 자원 이론적 관점, 사회적 역할 관점과 모를 포함시키는 체계적 관점의 기여도 및 이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도 가능하게 해주리라고 고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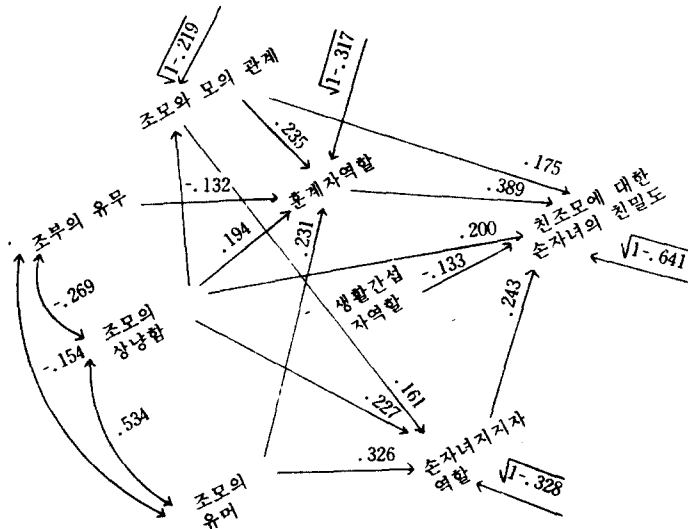


그림 1 친조모에 대한 손자녀의 심리적 친밀도를 설명하는 조정된 경로분석¹⁾

1) 손자녀의 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를 설명하는 경로모델에서 조모의 자원과 통제변수를 외생변수로 하고 조모와 모의 관계와 조모역할수행을 중재변수로 설정하였다. 조모역할이 조모와 모의 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것으로 추론하였다. 경로모델의 설정은 종속변수인 손자녀의 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와 중재변수인 조모와 모의 관계와 조모의 역할수행을 각각의 종속변수로 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만을 선정하여 시도하였다.

〈표 5〉 친조모에 대한 손자녀의 심리적 친밀도에 미치는 변수들간의
인과적, 비인과적 효과 및 총체적 관계

변 수	총체적 관계		인과적 효과		비인과적 효과
	A				A-D
		직접효과 B	간접효과 C	전체효과 D=(B+C)	
조부유무	-.273		-.051	-.051	-.222
조모상냥함	.585	.200	.213	.413	.172
조모유머	.480		.169	.169	.311
조모와 모의관계	.539	.175	.131	.306	.233
훈계자역할	.672	.389		.389	.283
생활간섭자역할	-.104	-.133		-.133	.029
손자녀지지자역할	.639	.243		.243	.396

* 총체적 관계는 각 변수와 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와와의 단순상관계수임.

친조모에 대한 손자녀의 심리적 친밀도의 경로 분석 그림 1 에서 앞서의 〈표 3〉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조부의 유무와 조모의 유머가 손자녀의 친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를 설명하는 중요변수로 등장한다.

조부의 유무는 친조모에 대한 손자녀의 심리적 친밀도에는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으나 조모의 훈계자역할에 효과를 미쳐 간접적으로 효과를 미친다. 조모의 유머도 조모의 훈계자역할, 손자녀지지자역할에 효과를 미쳐 친조모와 손자녀관계에 간접적인 효과를 미친다. 〈표 5〉에서 6 개 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해보면, 조모의 상냥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훈계자역할, 조모와 모의 관계, 손자녀지지자역할, 조모의 유머, 손자녀생활간섭자역할, 그리고 조부의 유무순이다. 여기에서 경로분석모델이 회귀분석모델의 유용성보다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독립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알 수 있

을 뿐 아니라 회귀분석에서 숨었던 조부의 유무가 중요변수로 등장하여 친조모와 손자녀관계의 속성을 밝히는데 기여하고 있다. 친조모와 손자녀관계에서 훈계자역할의 중요성이 큰데 이 훈계자역할은 조부의 유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다.

외조모에 대한 손자녀의 심리적 친밀도의 경로 분석 그림 2 는 〈표 4〉에서 의미가 없었던 조모의 유머가 조모와 모의 관계, 손자녀지지자역할과 대리모역할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쳐 외조모와 손자녀관계에 간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중요변수로 나타났다. 외조모에 대한 손자녀의 심리적 친밀도를 설명하는 각변수의 전체적 효과를 보면 〈표 6〉 외조모와 모의관계와 조모의 상냥함이 가장 크게 설명하고 있고, 손자녀지지자역할, 생활간섭자역할, 조모의 유머, 대리모역할, 지역의 근접성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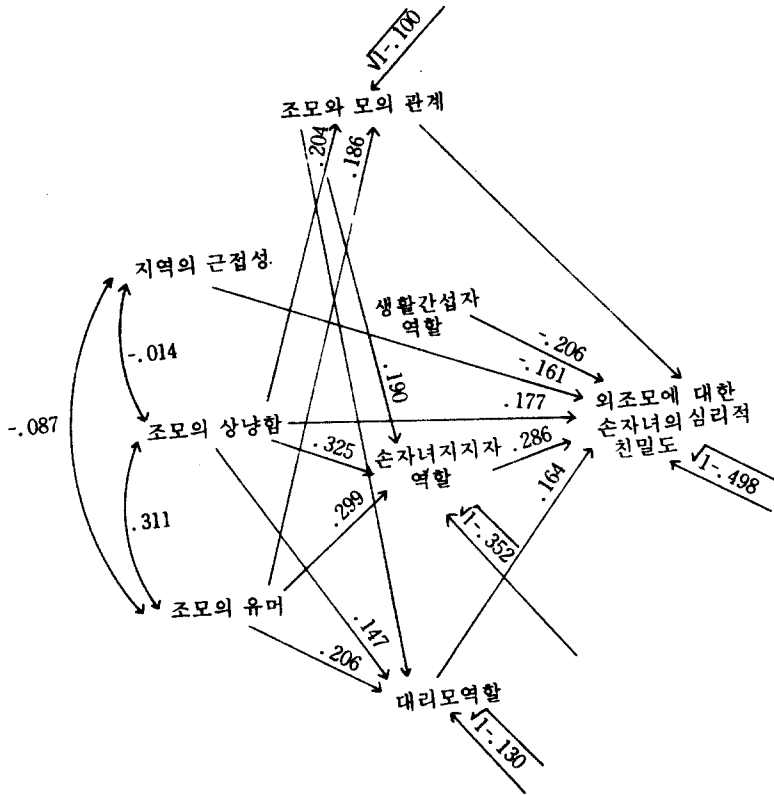


그림 2 외조모에 대한 손자녀의 심리적 친밀도를 설명하는 조종된 경로분석

〈표 6〉 외조모에 대한 손자녀의 심리적 친밀도에 미치는 변수들간의 인과적, 비인과적 효과 및 총체적 관계

변 수	총체적 효과	인과적 효과			비인과적 효과
	A	직접효과 B	간접효과 C	전체효과 D=(B+C)	A-D
지역의 근접성	-.106	-.161		-.161	.055
조모의 상냥함	.459	.177	.173	.350	.109
조모의 유머	.342		.170	.170	.172
조모와 모의 관계	.487	.272	.078	.350	.137
생활간섭자역할	-.203	-.206		-.206	.003
손자녀지지자역할	.569	.286		.286	.283
대리모역할	.406	.164		.164	.242

* 총체적 효과는 각변수와 조모에 대한 손자녀의 심리적 친밀도와의 단순상관계수임.

이상의 결과에서 조모역할 영역들의 전체 효과를 합쳐보면 조모와 손자녀의 심리적 유대는 친조모, 외조모관계에서 모두 조모역할수행에 의하여 가장 많은 부분이 설명되고 있어 조모와 손자녀관계는 조모역할에 의하여 심리적 친밀도가 좌우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특히 친조모에 대한 손자녀의 심리적 친밀도는 외조모와의 관계와 비교할 때 조모역할수행에 의하여 설명되어지는 변량이 크므로 더욱 역할지향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조모의 성격요인인 조모의 상냥함과 유머 수준이 함께 조모역할 수행 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거의 이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모의 성격요인이 모든 자원변수뿐 아니라 본 연구의 모든 독립변수중 비교적 큰 효과를 미치는 변수로 밝혀진 결과는 물질적인 부가 가족관계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흔히 말해지는 현세대에서 매우 바람직한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조모와 모의 관계는 친조모, 외조모와의 관계 모두에게 큰 효과를 미쳐 조부모-손자녀관

계의 접근에서 중간세대인 부모세대를 포함시킨 체계적 접근의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친조모·외조모여부가 조모의 자원, 조모와 모의 관계, 조모역할수행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았다. <표 7>에서 조모의 역할수행이 가장 큰 효과를 미치고, 그 다음으로는 조모의 자원이 그리고 조모와 모의 관계의 순이며, 친조모, 외조모여부는 위의 3개 범주의 변수와 비교하여 상당히 적은 영향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 택한 자원이론적 관점, 사회적 역할 관점과 모를 포함시킨 체계적 접근의 유용성이 실증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특히 조모역할수행이 손자녀의 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를 가장 크게 설명하고, 조모의 자원 및 조모와 모의 관계가 조모역할수행을 거쳐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져 본 연구에서 취해진 세가지 접근중 사회적 역할 관점이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표 7> 손자녀의 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에 미치는 친조모·외조모여부, 조모역할수행, 조모의 자원, 조모와 모의 관계의 인과적, 비인과적 효과 및 총체적 관계

변 수	총체적 관계	인과적 효과		·	비인과적 효과
	A	직접효과 B	간접효과 C	전체효과 D=(B+C)	A-D
친조모·외조모	.188	.027	.028	0.55	.133
조모의 긍정적역할	.663	.484		.484	.179
생활간섭자역할	-.148	-.177		-.177	.029
조모의 성격	.577	.151	.347	.498	.079
조부의 유무	-.188	-.056	-.055	-.111	-.077
조모와 모의 관계	.539	.233	.177	.350	.189

* 총체적 관계는 각 변수와 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와와의 단순상관계수임.

IV. 결 론

첫째, 손자녀는 조모에 대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조모역할은 Rosow의 분류중 제도적 유형에 속한다. 현대가족에서 국민학교 5, 6학년 손자녀에게 수행되는 조모의 기능은 훈계자 역할, 물질적제공자역할, 대리모역할, 가계역사 전수자역할, 손자녀지지자역할과 생활간섭자역할이다. 이 역할중 이시기의 손자녀의 발달과업과 관련된 삶의 기본이 되는 철학이나 형제간의 우애와 예절 등에 대한 교육적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가계역사전수자역할은 외조모보다는 친조모에게서 더욱 중요하나 조모역할 수행수준에서는 친조모·외조모에 따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부계가족의 규범이 손자녀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설명하는 조모의 자원 변수중 조모의 성격요인인 조모의 상냥함과 유머가 함께 가장 많은 변량을 설명하는 결과는 물질지향적인 현 세대에서 매우 긍정적인 시사를 준다고 하겠다.

조모지위는 매우 역할지향적이다. 손자녀와의 발달적인 욕구와 친조모와 외조모에 기대되는 조모역할을 고려함으로써 손자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조모와 손자녀관계는 노부모와 성인자녀관계의 본질적인 성격에 의하여 좌우된다.

셋째, 친조모와 손자녀관계는 조부의 존재가 영향을 미치는 훈육적인 성격을 보이는 반면 외조모와 손자녀관계는 친밀하고 비형식적인 속성을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친밀하고 조모역할수행 수준이 높은 외조모로부터 손자녀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친조모 외조모여부는 다른 변수의 영향력과 비교하여 그 영향력이

극히 적다. 따라서 친조모가 조모역할수행과 조모의 성격요인인 상냥함과 유머에 대한 관심을 두고 노력함으로써 손자녀와 밀접한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다섯째, 손자녀의 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를 규명하는데 있어 자원이론적 관점, 사회적 역할관점과 체계적 접근의 유용성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특히 사회적 역할 관점의 유용성이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다.

여섯째, 본 연구의 경로분석모델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 근거를 두고 한 방향으로 미치는 모델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실재 현상은 주요 변수들이 양방적인 영향을 주고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제한점은 연구가 거의 없는 시점에서 본 연구가 일차적인 시도이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점으로 두고자 한다. 조모와 손자녀의 심리적 유대를 설명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모델은 하나의 잠정적인 제시이다, 앞으로 손자녀와 조모간의 심리적 친밀도를 설명하는 실재에 근접한 모델설정을 위한 작업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김경원(1989). 친족관계망 유대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유미(1986). 노년기역할 변화에 대한 만족도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의순(1990). 대학생이 지각한 조부모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경미(1989). 조부모역할에 관한 기초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동인(1989).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 손자녀와의 접촉과 조모의 역할수행. 한국가

- 정관리학회지, 제7권 2호, 45-60.
- _____(1990).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심리적 거리와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7집, 199-215.
- 이광자(1989). 우리나라 친족관계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희(1989).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부의 사회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원(1984). 도시주부의 관계망에 대한 조사
(1).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44, 7-36.
- 이윤숙(1987). 조부모에 대한 아동의 의식구조. 동대논총, 제17집, 동덕여자대학교.
- 이효재(1971). 도시인의 친족관계. 한국연구총서 27, 서울: 한국연구원.
- 유영주(1989). 한국가족의 대내적 기능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복희(1962). 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석미(1980). 조부모의 역할에 대한 노년층의 의식구조.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희선(1987). 가족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성원사.
- 최재석(1975). 한국농촌사회연구. 서울: 일지사.
- _____(1983).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서울: 일지사.
- Blood, R. O. and Wolf, D. M. (1960). Husbands and wives: The dynamics of married living. Glencoe, IL: The Free Press.
- Cromwell, R. E. and Olson, D. H. (1975).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of power. In Cromwell, R. E. & Olson, D. H. (Eds.), Power in families (pp. 15-37). New York: John Wiley.
- Gecas, V. (1979). The influence of social class in socialization. In W. R. Burr, R. Hill, F. I. Nye and I. 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pp. 365-404). New York: The Free Press.
- George, L. K. (1980). Role transitions in later life. Belmont, CA: Brooks/Cole.
- Judson, J. S. (1985). Older grandparents' perceptions of generativity in the grandparent-grandchild relationship.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Kansas State University.
- Klvnick, H. Q. (1980). Grandparenthood: Meaning and mental health.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Microfilms No. 81-6165(a).
- _____(1982). Grandparenthood: Overview of meaning and mental health. Gerontologist, 22, 59-66.
- Kornhaber, A. (1985). Grandparenthood and the new social contract. In V. L. Bengtson and F. F. Robertson (Eds.), Grandparenthood (pp. 159-171). Beverly Hills: Sage.
- Lowman, J. C. (1980). Measurement of family affective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4, 130-141.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Nye, F. I. & McLaughlin, S. (1975). Role competence and marital satisfaction. In F. I. Nye (Ed.), Role structure and analysis of the family. Beverly Hills: Sage.
- Rettig, K. D. & Bubolz, M. M. (1983). Interpersonal resource exchange as indicators of quality of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497-509.
- Rosow, I. (1976). Status and role change through the life span. In R. H. Binstock and E. Shanas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 (pp. 457-482).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Satir, V. (1972). Peoplemaking. Palo Alto: Science and Behavior Books.
- Troll, L. E. & Bengtson, V. L. (1979). Generations in the family. In W. R. Burr, R. Hill, F. I. Nye and I. 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pp. 127-161). New York: The Free Press.